

“고향에 돌아가 한국의 선진 농축산 기술 접목할 것”

우간다 전북대 졸업생들 고향에서 농축산 협동조합 설립

“2년 동안 전북대에서 선진 농축산 기술을 배웠어요. 우간다에 돌아가 한국의 선진 농축산 기술을 접목해 자국의 발전을 이끌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산학연계형 석사과정인 농축산식품융합학과 입학해 선진 축산기술을 배운 우간다 학생 9명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12일 수료했다.

전북대 부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센터장 김중기)는 산학연계형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마케레레대 축산수의학 졸업생을 전북대로 초청해 우간다 엘리트 축산인력으로 양성했다. 이들은 석사과정의 농축산식품융합학과에 진학해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며 선진 축산기술을 배웠다. 학생 현장실습은 (재)녹색농촌과 두지팜에서 위탁받아 진행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모든 학생들은 현장실습과정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들은 이 기술을 우간다 농축산 발전을 위해 접목시키는 역할을 할 계획이어서 국제개발협력의 선순환 모델로 이목을 끈다. 이들은 우간다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현지에서 ‘우간다 글로벌푸드컬처협동조합(가칭)’을 창립할 계획인 것.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이 협동조합은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약취나 생산성 저하 등의 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개발한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라는 선진 축산 기술을 우간다에 적용해 질병 등에 강한 우수한 돼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이 협동조합의 출범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2월 12일 오전 우간다 졸업생을 비롯해 김동



지난 2017년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산학연계형 석사과정인 농축산식품융합학과 입학해 선진 축산기술을 배운 우간다 학생 9명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12일 수료했다.

원 총장 등 이하고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함께 이 협동조합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발표에서는 졸업생 대표인 보게레 풀씨가 ‘육성돈의 장내 미생물 군집 및 칼프로텍틴 수준에 미치는 Lactobacillus spp., Bacillus subtilis 및 Saccharomyces cerevisiae 복합미생물제의 농가 효능 평가 연구’를 주제로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활용한 축산 4대 문제(질병, 냄새, 분뇨, 생산성) 해결 연구 성과를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풀 보게레 학생은 “분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한국에서 배운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선진 축산기술을 마케레레대 시범농장에 적용하여 질병 없는 돼지를 많이 생산하고 싶다”며 “창립

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양돈뿐만 아니라 양계와 농축산식품 밸류체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우간다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교내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마치고 국내 최초로 현지에 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동조합은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와 우리대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새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산학협력 석사과정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우간다 축산 인재들과 한국-아프리카 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KOICA 우간다 농축산 순환형 농가소득 창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 정기총회 개최

예수병원은 12일 예배실에서 예수병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국제 NGO(사)국제의료협력단의 2019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기총회는 예수병원 권창영 병원장 및 예수병원 직원들 참석으로 이동휘 국제의료협력단 이사장의 사회로 2018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승인, 2019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보고, 승인이 있었다.

국내는 물론 지구촌 어려운 이웃의 좋은 친구인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은 지난해에 국제협력부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스와질랜드 해외의료 봉사과 몽골, 중국, 미얀마, 대만, 태국 등 18명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해외 선교사와 해외 의료진 지원, 예수병원 인턴 해외 연수, 방글라데시, 우간다, 스와질랜드,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해외 지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지원했다.

국내사업부에서는 농어촌 목회자 자녀 13명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미자립 11개 교회를 지원했고 군산 나눔기쁨교회를 비롯한 교회에서 9차례에 걸쳐 농어촌 의료봉사를 했다.

병원협력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107명의 환자 치료비로 3,510만원을 후원, 외국인근로자 진료협력부에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외국인근로자 108명에게 무료진료와 다문화가정을 위해 2,600여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에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서 있던 캄보디아 청년 샘 찬(Sam Chan, 23세)이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의 도움으로 예수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찾는 등 NGO 국제의료협력단은 지구촌 곳곳에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 중 최고 수준과 규모인 총 10억8,5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은 올해에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해외 의료봉사와 아프리카 의사 등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를 실시하며 의료기자재를 지원하고 국내 농어촌 의료 봉사, 취약 계층 의료비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김영태 기자

순창군 옥천인재숙 수료식 개최

인재양성의 요람인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제15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37명의 수료생과 함께 100여명의 후배들이 참석해 수료하는 선배들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은 황숙주 순창군 옥천장학회 이사장의 수료증 수여와 김영남 학부회장의 사진첩 증정, 재학생 송사, 수료생 담사, 수료생 전원 장미꽃 전달 및 사진촬영, 케이크 커팅 순으로 이어졌다.

옥천인재숙은 기숙형 교육기관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선발시험을 통해 학년별 50명씩을 선발, 학생들의 학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도시 전문강사를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로도·농간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황숙주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료생들은 순창을 벗어나 대학생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면서 “순창을 넘어 대한민국의 별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재양성의 요람인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제15기 수료식을 가졌다.

했다. 이날 수료하는 학생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3,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14명, 대구교대 1, 전북대 3, 전남대 10, 경북대 2명 등 국공립 19명이

진학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순창군 옥천인재숙은 2003년에 최초 설립되어 현재까지 제15기 6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병원, 15일까지 암 극복 위한 '동행' 사진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항암치료 인식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암센터 1층 로비에서 암 극복을 향한 사진전 ‘동행(同行)’을 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대한종양내과학과에서 지난해 말 개최한 ‘제2회 항암치료의 날 기념 사진전 : 동행(同行)’의 전곡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암 환우와 종양내과 의사들의 기적’을 향한 동행(同行)을 주제로 한 이번 사진전에서는 암 환우와 의료진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지속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원장은 “사진전을 통해 항암치료 과정이 암 극복을 위한 환자와 의사의 동행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며, “병원 내에서 암 치료 환우, 가족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과 수기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항암 치료에 대한 희망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부음

▲서병선(전민일보 원주주제기자) 장인상= 빈소: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 301호 특실, 발인: 2월 14일 오전 9시, 장지: 완주공원 묘지, 연락처: 010-9651-5548



순창 농기센터,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반 운영 '호평'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승, 이하 기술센터)가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술센터는 12일 60여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과 소형 중장비 이론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농기계의 안전한 사용법을 가르쳐 농가의 안전을 챙기는 한편 소형 중장비 이론교육도 병행해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했다. 현재 기술센터는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 인근 시군의 중장비 학원에 위탁교육을 통해 농가의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31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장비사용에 어려움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굴삭기 포장작업 실습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농기계 품목별 연구모임 농가를 대상으로 소형농기계 고장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분해조립 교육과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자격증을 취득한 농가는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의 소형 굴삭기를 임대해 포장 배수로 정비, 농작물 굴취작업 등 영농 현장에 활용하면서 농가경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술센터는 현재 소형 굴삭기 6대를 확보하고 지난해까지 610회에 걸쳐 굴삭기 임대해 줬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경찰, 현장대응능력 강화 훈련 실시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1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관 체력 증진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무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무도훈련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및 체력관리규칙 규정에 의거해 간 액션 스포츠 조성원 무술 관장의 지도 아래 진행됐다.

안상엽 서장은 “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을 구하고 경찰관 스스로를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강인한 군산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심신 수련 및 무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원경찰 동통지구대, 통장회의 참석 여성범죄예방 홍보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도 통지구대(대장 이동권)는 12일 동통동 통장회의에 참석해 여성안전특별치안 활동을 위한 범죄예방 등을 홍보했다.

홍보에 나선 이동권 지구대장은 지구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및 특별순찰노선 지정을 설명하는 등 취약시간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을 홍보했다.

특히, ‘스마트 국민재보 앱’을 통해 여성 불안신고 등 지역 내 불안 요소 등에 대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교통사고·음주운전·전화 및 SNS 금융사기 예방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남원소방서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의 문화증진 및 최초발견자에 의한 응급처치 등 국민의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남원 순창 관내 대표로 참가할 팀(3인 이내 구성)으로, 자격은 각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은 만10세 이상의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의용소방대원이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인 양성학과 재학생 등 전문 인력은 제외된다.

경연은 퍼포먼스가 있는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발생상황 대처행동 및 짧은 촌극 형태로 자유주제이며, 최우수 수상팀에는 전북도지사 상장과 오는 4월 28일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고, 신청은 이날 22일 금요일까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630-8244)로 하면 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대표로 참가하는 팀에게는 소방서 내 전문심폐소생술 교육장 개방 및 경연장비 일체 제공, 전문 구급교관 1:1코치 등 대회 준비를 위한 모든 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